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

성경말씀: 눅9:37-56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3년 동안 왕국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서는 자들이 많지 않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 보게 된다. 진리를 보여 주고 알려 줘도 기존의 틀, 기득권 제자들의 믿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직도 정확히 예수님을 모름(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변화산 사건(눅9:27-36)을 통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 주심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얼굴이 변하고 옷이 희게 되어 빛남(29),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초림(고난받는 메시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35)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년 동안 동행, 12제자의 으뜸, 특별 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림/재림, 신약/구약 구분 못함 눅38, <하늘의 사람들과 이 땅의 현실> 구원받았어도 오래 되었어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1. 마귀와 질병과 고통(37-42)

제자들이 하늘을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마귀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옴(37-42).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마귀가 그를 죽이ना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38-39).

제자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 병이 있고 마귀가 있다. 유혹이 있고 눈물과 고통이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당하는 일, 심지어 제자들도 고치지 못한다.

여기의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는가? 없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신다(41-42).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쥐어뜯는다(42). 심지어 예수님에게 오는 데도.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주신다.

구원받은 성도도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나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로 은혜와 왕좌로 담다하게 나가야 한다. “주여 해결해 주소서”

요일5:14-15, 기독교는 만사형통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빌4:12-13, 고난이 따라온다. 나도 마찬가지, 성경, 교회 사역, 여전히 어려움(육적, 영적 고통)

2. 예수님을 잘 모른다(43-45)

이 말을 귀에 담아 두라, 내가 죽는다(44).

그런데 사람들은 병고치는 권능에만 놀라고(43)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45).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갈보리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다.

땅에서 보상과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 보상과 영광이 없다(요12:42-43).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킹제임스 성경이 옳고 기존의 구약식 교회가 틀림을 알면서도 기득권 포기 못함 이것은 야고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믿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행위가 없다(약2:26).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후4:16-18

3. 자리 다툼(46-48)

누가 가장 큰가 하는 일로 논쟁이 일어남(46)

지금 어떤 때인가? 주님이 내가 곧 죽는다고 하는데 자리 다툼을 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작은 자가 돼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란 누구인가?

섬기는 자, 막10:42-45

주님의 원리: 섬기면 리더가 된다. 우리 교회의 원칙: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

섬기는 것은 종류가 많다: 말씀, 가르침, 권면, 음식 대접, 환영, 교회 봉사, 재물, 재능 그런데 여기의 작은 자를 가난한 약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금요 모임: 신명기 맥 잡기 강해, 15장,

1. 가난한 자들 배려(7-11), 11, 약2:1-5 등,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2. 그럼에도 교회는 구제나 자선 기관이 아니다.
3. 가난하거나 약하다고 무례하게 구하거나 행하거나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한 청년, 형제).
4.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든 경우,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경우 돕지만 늘 한계가 있다.

4. 파당(49-50)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고 막으면 안 된다(49).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50).

카톨릭, 물론, 여증, 안상홍, 신천지 다 예수님을 언급한다. 그래도 같이 못한다.

한국의 기장, 통합은 종교 일치를 실현하려 한다.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같이 못한다.

정상적인 구원의 교리, 실행의 교리: 침례교가 아니라도, 목사가 없어도, 집에서 모여도 인정

심지어 개역성경, 그들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

가장 무서운 이단: “우리만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5. 영적 우월감과 능력의 오용(51-56)

드디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함(51).

얼굴을 고정하셨다.: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

미리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52-53): 사마리아 사람들

BC 721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됨, 아시리아 이주 정책,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오서 거하면 피가 섞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사마리아 종교(그리심 산)

제자들의 분노(54): 엘리야, 갈멜 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이 보는 데서 불이 내려옴, 잡아 죽임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거부해”: 교만과 무지의 극치

작은 자가 되어 섬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대상을 오직 유대인으로만 한정함

이제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심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음

우리는 어떤가? 세상 사람들을 비하하면 안 된다: 이방인, 이교도, 개나 돼지 No!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의 책망(55): “너희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은 내 사람들에게 부적합

예수님의 결론(56): “내가 온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배, 섬김, 교육, 선교, 구제 등

규정과 절차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없애야 한다: 특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

1년 입교, 2년 집사, 새벽기도, 주일성수, 십일조 주차장 봉사 장로 No!

현금 봉투가 도대체 몇 개인가? 현금 공개 No! 일천 번제, 무리한 새벽기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 종교의 열성분자, “우리만 교회다” 주장하는 자(교황)

요16:1-2, 사람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함

적용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침례, 바른 교리 등을 외친다.

이러는 가운데 혹시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을 마구잡이로 무시하거나 비하하지는 않는가?

과거의 사례: 사악한 무리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최초의 신약 교회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목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주님의 경고(55):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귀의 일을 할지 모른다.” “지금도 그러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일은 1차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바른 구원을 가르쳐 일단 살린 뒤에 먹여야 한다.

결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6).

그럼에도 1. 이 땅에는 슬픔 고통 질병이 있다. 주님께 나가야 한다. 2. 예수님에 대한 무지, 3. 크게

되려는 욕심, 4. 파당, 5. 사람들을 알보는 일

주님의 경고(55), 사람을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